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

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은 세계에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망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미 불황의 바닥을 갱신하고 있던 경제는 더 깊이 침체했다. 전례 없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문명'이라는 가면 아래 가려져 있던 인간의 야만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가 '선진국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었던 국가들도 이기적인 생존의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약자를 먼저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난에 대응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정책 기조에 힘을 얻은 듯,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문명과 인권존중이라는 가면으로 애써 감춰온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감염병이라는 재난 속에서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기존의 생활방식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껏 인류가 애써 쌓아온 문명이라는 외피를 아무런 가책 없이 벗어버리는 이기적인 욕망들을 날것으로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다. 흑사병의 창궐이 유럽에서 '중세'라는 시대정신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경제학 용어에서 가져온 '뉴노멀'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새로운 변화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교육, 특히 대학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노멀'에 초점을 맞추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비대면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

지난 6월 24일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전략연구소에서는 “비대면 사회 교육 미래와 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GSI 국제포럼 2020>을 개최했다. 포럼의 주제가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학자들이 비대면 수업이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¹⁾ 기사에 의하면, <미네르바스쿨>을 설립하여 “캠퍼스 없는 대학”을 앞장서서 표방해온 벤 넬슨은 “이번 기회로 훨씬 많은 온라인, 모두가 접근 가능한 교육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존 대학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최고 수준 학생도 대학 학기 후 90% 수강 내용을 잊어버린다”면서 대학이 이 변화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또한,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최고 지식책임자 필 벤티는 전 세계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학습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혼합형 학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³⁾ 또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맞춘 교육이 대세가 될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⁴⁾ 이태억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강의 중심의 교육을 상호작용이 활발한 참여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⁵⁾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강의가 이를 위한 기회를

1) 김영준,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사회, 교육의 미래는?,” <https://www.etnews.com/20200624000162>, 『전자신문』,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2) 김영준,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사회, 교육의 미래는?,” 『전자신문』,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3) 박주영, “교육,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변화...온라인 학습이 대안,”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106100063?input=1195m>, 『연합뉴스』,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4) 박주영, “교육,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변화...온라인 학습이 대안,” 『연합뉴스』,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제공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원격 강의로 진행하면서, 온라인 강의가 앞서 학자들이 제기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원격 강의는 애초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시작된 만큼 학기 초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수업의 진행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원격 강의가 차차 자리를 잡아가고, 매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대면 수업보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대형 강좌에서 원격 강의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었다. 대형 강좌의 경우 기존의 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면수업에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나 의견도 비공개로 교수자와 주고받는 피드백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피드백 과정은 기존에도 사이버캠 퍼스를 통해 이루어져온 것이지만, 비대면 수업에서는 동영상 강의 외에도 과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활발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앞서 인용한 'THE'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대학의 경우 평소 학생들이 수줍음이 많고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한다.⁶⁾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동영상 수업에서 나타나는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히 대형 강좌의 경우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강의에 대한 집중도 역시 온라인 수업의 활용 방식에 따라 대면 수업보다

-
- 5) 박주영, "교육,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변화...온라인 학습이 대안," 『연합뉴스』,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6) 박주영, "교육,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변화...온라인 학습이 대안," 『연합뉴스』,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수업의 특성상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좌에서는 대면 수업이라 할지라도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또한 대면 수업에서는 강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녹음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학습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 온라인 수업은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활용 방법에 따라 대면 수업보다 학습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값을 담은 강의를 교수자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수업 방식 중 실시간 강의가 아닌 동영상 강의의 경우, 강의내용을 주제에 따라 세분하여 짧은 분량의 동영상으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집중도를 보다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면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 시간 내내 수업이 진행되므로 학습자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이처럼 짧은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학습하게 되면 장시간 진행되는 대면 강의보다 효과적으로 강의에 몰입할 수 있다.

이제까지 온라인 강의가 대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온라인 강의가 가진 이 모든 잠재적 가능성은 당연히 양질의 강의와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진다고 해도, 온라인 강의의 잠재적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비대면 수업의 그림자: 저작권과 초상권

교수자의 입장에서든 갑작스럽게 시행된 원격 수업은 학생들만큼이나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혀야 했고, 난생 처음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면서 한 강의를 여러 차례 다시 녹화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혹스러움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점차 극복할 수 있는 난점들이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얼굴을 드러내는 동영상 수업이 언제든 온라인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특히 여성 교수자의 입장에서 온라인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외모평가, 성적비하발언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동영상 강의가 어떤 경로로든 외부로 유출되어 비하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 학기에 진행된 원격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수업자료를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강의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교수자의 얼굴을 온라인상으로나마 대면하는 수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프레젠테이션 화면과 교수자의 목소리만 제시되는 동영상은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면 수업이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는 점이다. 원격 수업 방식이 지속될 경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은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수업자료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저작권 문제였다. 대면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했던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학습 자료를 위한 저작권 지침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학교마다 달라서 교수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학습 자료를 위한 저작권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을 앞둔 3월 말이 되어서였다.⁷⁾ 적어도 2-3주 먼저 개강을 시행한 대학의 원격 수업에서는 한동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음원자료의 활용이 중요한 음악대학의 여러 강좌에서는 대면 수업에서 제공할 수 있었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한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었기에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수업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https://www.keris.or.kr/main/na/ntt/selectNttInfo.do?mi=1051&nttSn=36454>, 검색일: 2020. 6. 20.

비대면 수업의 그림자: 디지털 격차

앞서 원격 수업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거했지만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바라본 전망일 뿐, 실제로 원격 수업의 가능성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단은 없다.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디지털 환경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실제로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자녀가 모든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려면 여러 대의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 초중고생의 경우 정부에서 스마트기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대학의 원격 수업은 학생이 적어도 한 가지의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사실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문제는 하드웨어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환경은 주거환경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모든 학생들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 주거하는 경우 데이터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많은 대학 강좌를 데이터비용을 지불하면서 수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주거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학생들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만 원격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코로나대학생 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습권 피해 사례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탓에 와이파이를 설치되지 않은 학생은 카페를 가야합니다. 도서관이 폐관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취방에 와이파이 월 2만원을 부담하고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⁸⁾ 많은 학생들이 와이파이를 설치되어 있는 카페나 스터디카페를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원격 수업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실시간 강의를 실시할 경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형 강좌의 경우에는 학교 측의 서버로 인해 실시간 강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학생들의 출석 여부에 불이익이 가지 않지만, 소형 강좌에서 개별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실시간 강의에 제대로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출석 점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개별 교수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자막을 제작하기란 역부족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개별 학생들의 상황과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GSI 국제포럼 2020>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의 전무이사 사디아 자히티는 “코로나19는 기존 디지털·교육 격차를 더욱 극대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⁹⁾ 개별 학습자의 환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 교육 격차 해소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비대면 수업의 그림자: 학습권 침해

앞서 인용한 대학생 학습권 피해 사례 조사에서는 수업의 질과 수업환경의 문제, 실습중심 수업에서의 피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추가

8)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94641>, 『참여연대』, 2020. 3. 31. 검색일: 2020. 6. 24.

9) 박주영, “교육,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변화...온라인 학습이 대안,” 『연합뉴스』,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적인 비용의 문제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었다.¹⁰⁾ 우선 수업환경에 대한 문제로는 대학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학교 측의 서버 다운으로 인해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외부인이 들어와 댓글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규정된 시간보다 적은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실습이 중요한 전공의 경우에는 학습권의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특히 레슨이나 합주 등이 중요한 음악대학의 경우 많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실기수업이 제일 많은 과인데 1:1로 만나서도 안 된다, 연습실 사용도 안 된다, 모든 수업들을 zoom이나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만 수업하라고 공지가 났는데 레슨이나 합주, 연주 위클리수업은 그런 게 불가능한 수업입니다.”¹¹⁾ 예체능 전공의 경우 졸업작품 전시나 졸업연주 등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수업의 질이나 수업 환경만큼이나 심각한 피해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원격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카페나 PC방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도서관이나 연습실 사용이 제한되고 학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¹²⁾ 지방출신 학생의 경우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귀향한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방침을 고수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학습권 침해를 근거로 각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던 대학 측에서도 학습권 침해에 대한 여론이 거세

10)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연대』, 2020. 3. 31. 검색일: 2020. 6. 24.

11)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연대』, 2020. 3. 31. 검색일: 2020. 6. 24.

12)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연대』, 2020. 3. 31. 검색일: 2020. 6. 24.

지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미 등록금 반환 대책을 발표한 대학도 있고 등록금 심의 위원회 개최를 고심 중에 있는 대학도 있다.¹³⁾ 문제는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인 장학금 지급 등의 방편으로는 장기화될 원격 수업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교육 격차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재난은 아래로 흐른다

원격 수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시야에서 벗어나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업의 질에 신경 쓰지 않았던 교수자들에 대한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경제적 환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그로 인한 교육 격차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 기록이 남는 원격 수업은 학생들의 보다 엄격한 평가 속에 놓일 수 있으므로 교수자들은 좀 더 새롭고 수준 높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학교 측에서는 온라인 환경을 재정비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 격차와 교육 격차, 그리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피해이다. 재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격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되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분명한 경제적 격차가 존재한다. 더욱이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학생이 원격 수업에 적합한 디지털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현재의 원격 수업 방식은

13) 최원형, “한성대, ‘전교생에 20만원 장학금’...건대 이은 ‘등록금 반환’ 대책 주목,”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0604.html>, 『한겨레』, 2020. 6. 23. 검색일: 2020. 6. 24.

가혹한 요구일 수 있다.

재난은 언제나 아래로 흐른다. 동일한 재난 상황에서도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저소득층이고 노약자이고 소수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있을 대학생들에게도 재난의 피해는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각자도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일까. 아닐 것이다. 적어도 교육자는, 학교는 제도와 구조 때문에 낙오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대재난의 시기를 적자생존, 강자독식이라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아포칼립스적인 디스토피아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

사실 누구나 답은 알고 있다. 혹자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표현할 것이고 혹자는 공동체 정신, 혹은 연대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시혜적인 태도는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공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약자와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연대이지 배려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동체’, ‘연대’ 개념은 비대면 시대의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연대’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독립연구자’ 김현경은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현대적 이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적인 것과 대립되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공동체 개념을 제안했다.¹⁴⁾ 서로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이미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화두이다. 특히 최근 몇 년

14) 김현경, 『사람, 장소, 현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204.

동안 한국사회가 경험한 새로운 시위문화와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 새로운 가족문화 등을 통해 ‘느슨한 연대’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느슨한 연대’는 구성원 각자의 차이와 개성을 침해하거나 단일화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하나의 의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 즉 측은지심이 아니라,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공감능력,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재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 이 위기상황에서 요구되는 뉴노멀로서의 ‘연택트’는 고립된 개별자들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끈끈하게 뭉쳐있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는 개별자들의 ‘느슨한 연대’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 김영준.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사회, 교육의 미래는?.” <https://www.etnews.com/20200624000162>. 『전자신문』.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 박주영. “교육,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변화...온라인 학습이 대안.”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106100063?input=1195m>. 『연합뉴스』. 2020. 6. 24. 검색일: 2020. 6. 25.
- 최원형. “한성대, ‘전교생에 20만원 장학금’ ...건대 이은 ‘등록금 반환’ 대책 주목.”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0604.html>. 『한겨레』. 2020. 6. 23. 검색일: 2020. 6. 24.
-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94641>. 『참여연대』. 2020. 3. 31. 검색일: 2020. 6. 2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수업 및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https://www.keris.or.kr/main/na/ntt/selectNttInfo.do?mi=1051&nttSn=36454>. 검색일: 2020. 6. 20.